

 국토교통부	보도참고자료		
	배포일시	2017. 10. 24(화) / 총 1매(본문1)	
담당부서	건설산업과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이병훈, 사무관 박균성, 주무관 임대한 • ☎ (044) 201-3538, 3539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“국토부 뒷짐... 갈등 키운 정부”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님

- 남해 배타적경제수역(EEZ) 골재채취는 협의 이행조건 및 어민 단체의 반대로 '17.1.16일부터 채취가 중단되어 있습니다.
 -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해수부·남해지역 어민단체와 바다골재채취 방안 협의 추진 및 바다모래 공급 감소에 따른 산림·선별파쇄의 부순 모래 확대 등 골재원 다변화로 동남권 골재수급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 - 또한, 남해 EEZ 바다모래관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국토부는 동남권 골재원 다변화 방안을 마련('17.12)하고, 해수부는 바다모래 채취관리 강화방안을 마련('17.12)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.
- 남해 EEZ에서 채취한 골재는 '08년부터 '16년까지 총 62,179천m³ 이며, 이중 국책용은 20,335천m³, 민수용은 41,844천m³ 공급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아주경제, 10.24) >

<p>◆ 바닷모래가 무한리필?... 그곳 어장은 '무한신음'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골재채취법 전 국토부 뒷짐 ... 갈등 키운 정부 - EEZ 모래관련,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고, 바다에서 발생한 사안이고, 어민과 연계돼 해수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라며 보도 - 2008년부터 바다모래 채취와 관련, 채취한 모래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지 민간용으로 사용되었는지 통계자료조차 없다고 보도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박균성 사무관(☎ 044-201-353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